금호, 현대 합성고무사업 인수 관심

금호그룹 박삼구 회장체제 공식 출범 … 타이어 매각은 지연 불가피

금호그룹이 9월2일 박삼구 회장(57) 체제로 공식 돌입했다.

박삼구 금호 회장은 서울 신문로 본사에서 회장 취임식을 하고 "생명공학, 신소재, 물류사업 등 3대 유망 신규 사업을 발전시켜 금호그룹을 2010년까지 5대 기업집단으로 성장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삼구 회장 취임은 고 박인천 창업회장(1대), 박성용 명예회장(2대-71), 고 박정구 회장(3대)에 이은 4번째이다. 박삼규 회장은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의 3남으로 1967년 대학 졸업과 동시에 금호에 입사해 경영수업을 받아 온 정통 금호맨이다.

박삼규 회장은 취임식에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경영 △윤리경영 △인재경영 △전략경영 등 4가지 경영전략을 발표했다.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MBA 프로그램을 비롯한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핵심 분야의 외부 전문인력도 과감히 영입할 계획이다.

박삼구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2001년 2월부터 회장직을 대행해 그룹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취임 후에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금호의 전통인 형제경영체제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삼규 회장은 "항공·고속 등 운수분야와 타이어·석유화학 계열, 관광·레저 등 기존사업 분야는 철저한 경영합리화를 통해 내부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현재 추진중인 사업구조조정을 2002년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석유화학 인수와 관련해서는 NCC 부문에는 관심이 없고 NCC 인수가 확정되면 합성고무 부문 인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해 "현재까지 매각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당초 예상했던 9월말을 넘겨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을 전망으로 있고, 타이어 매각 의지가 확고하고 그렇게 돼야 확실한 재도약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선협상 대상자인 칼라힐과 벌이고 있는 매각협상은 타이어 지분 80%를 매각하는 선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금호는 추후에 그 지분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우선권)를 갖게 될 전망이다.

타이어 매각이 성사되면 2002년 말까지 그룹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내려 과도한 영업외비용 지출을 줄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무역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도심공항터미널 매각건은 대주주인 무협과 협의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삼구 회장 취임 후에도 금호의 독특한 경영체제인 형제경영 기조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박삼구 회장이 3세 경영은 현재로서는 전혀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혀 4남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사장이 차기 경영권을 승계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5남인 박종구 기획예산처 공공관리단장(44)은 그룹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3세 가운데 그룹에서 일하는 사람은 1명도 없다. 고 박인천 회장 형제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국내외에서 학업중이거나 출가 등으로 경영수업과 거리를 두고 있다.

8월 말 현재 5남을 제외한 4형제가 금호석유화학 4.95%씩, 아시아나항공 0.29%씩 동등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형제경영 구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고 박정구 회장이 보유했던 금호석유화학·아시아나항공 지분은 장남인 박철완 씨에게 상속될 예정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9/04>